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1. 회의년월일 : 2013년 01월 11일(금) 10:00
2. 회의소집통보일 : 2013년 01월 07일(월)
3. 회의장소 : 기획홍보처장실
4. 회의안건 : 1) 2013학년도 등록금 책정 심의의 건
2) 기타의 건
5. 위원정족수 : 9명
6. 참석위원 : 방우송, 소현정, 김종천, 정찬용, 이지은, 임성준
7. 불참위원 : 장용원, 장인선, 안태관
8. 회의내용

위원장이 출석을 점명하니, 출석위원 6명으로 과반수이상 참석으로 회의 성원이 되어 개회를 선언하고 회의안건을 상정하다.

위원장 : 금일 회의는 기 통보해 드린바와 같이 2013학년도 신입생 등록금을 확정하고자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포한 회의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안건 2013학년도 등록금 책정 심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의 주요사항을 설명하겠습니다.

회의 자료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교과부의 지침을 보면 각 대학은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0년, 2011년, 2012년 3개 연도의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1% 이므로 등록금 인상률은 이의 1.5배인 4.65%를 넘어서는 안되는 것 입니다. 참고로 본교는 지난 2012학년도 등록금을 5.2% 인하 하였습니다. 2013학년도 학부와 대학원 등록금 책정을 위하여 준비한 인상안은 4가지로 1안은 2012년에 납부한 수업료를 그대로 금년에도 그대로 납부하는 방안이며, 2안은 학년을 기준으로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고 납부하는 방안이고, 3안은 음악계열 신입생만 인상하는 방안이고, 4안은 음악계열 전체학년을 인상하는 방안입니다.

소현정위원 : 교과부에서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에 대하여 공고한 자료에 의하면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이슈로 등장한 반값등록금에 대한 여론이 아직도 남아있어 본교의 입장만으로 인상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천위원 : 저도 소현정교수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본교의 경우는 양주캠퍼스 설립 등 등록금 인상요인은 가지고 있으나, 여론 등 제반여건 상 등록금을 인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시 방안 중 3안과 4안의 경우에는 해당계열 학생들의 반발이 심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임성준위원 : 다른 대학들은 동결이나 인하를 한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학교는 인상한다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등록금을 인상한다면 인상에 대하여 학생을 위한 지출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학생들을 설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정찬용위원 : 학생회장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반영하여 등록금 인하를 원하는 것이 솔직한 입장입니다.

소현정위원 : 등록금 동결을 원하는 학생 입장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등록금을 인하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교과부의 권고범위 내에서의 인상은 괜찮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 학생회 입장에서는 등록금 인하만큼 좋은 것은 없겠지만 어려움이 많으므로 등록금을 추가로 인하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지은위원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권고한 인상율이 4.7%내라고 해도 현실과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학생회장도 이야기 했지만 다른 대학들은 동결이나 인하한다고들 말하는 것 같은데 인상하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 이지은학생 이야기는 인상은 안되고 인하나 동결을 이야기 하시는 거 같습니다. 설명 드린바와 같이 1안은 2012년에 본인이 납부한 등록금을 내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은위원 : 학생입장에서는 인하나 동결을 요구합니다. 회의자료 1안은 수업료는 동결하고 입학금만 인상한다는 것인데, 수업료와 입학금 모두 인상하지 않고 2012년 학년별 등록금을 그대로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 그렇지만 소비자물가 상승 등의 기본적인 인상요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소현정위원 : 등록금 인상요인은 잠재되어 있으나 학생회 입장이 단호한 것 같습니다.

정찬용위원 : 학교입장에서는 인상이 필요하시겠지만, 학생과 부모님의 부담을 줄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 등록금을 2012년 기준으로 동결하자고 하는데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참석위원 전원 : 없다고 함.

위 원 장 :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시니 2013학년도 등록금 인상에 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학년도 등록금은 2012학년도 등록금 수준을 유지하기로 확정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9. 결의사항

안 건 : 2013학년도 등록금 책정 심의의 건

결의사항 : 2013학년도 학부 및 대학원의 등록금은 2012학년도 계열별, 학년별 등록금 수준을 유지하기로 의결함.

별 첨 : 2013학년도 학부 및 대학원 등록금 책정(안)

2013년 01월 11일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장

이영익

위 원

손인영

위 원

임성준

위 원

이지은

위 원

정찬용

위 원

김용찬